치 사

세상의 온갖 만물이 생명의 기운으로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가운 계절에 생명을 품은 희망의 터에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김포 용화사의 원력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건강한 노후생활과 아프고 힘든 소외 계층을 위해 헌신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관스님과 불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애인들과 다문화가정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이웃의 행복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아가 커다란 원력으로 지혜로운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고통에 있는 삶의 약자들을 살피겠다는 것은 종단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마음의 치유까지 아우르고 정성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의료혜택은 현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장벽에 마주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염원을 생각하며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는 곧 스스로의 행복과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지난 동안 묵묵히 이끌어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현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해온 것에는 앞선 세대의 노고가 고스란히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고마움을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비로움이 싹트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함께하겠다는 공덕이 향기로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

다.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김포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헌신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임자와 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지스님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용화사 불자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보리수 요양병원이 모두의 발원을 담은 성취를 이루기까지 한결같은 원력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3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